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 연구

성윤길 *

- I. 머리말
- II.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의 양식 고찰
- III.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의 양식 특징과
중국 산동성 출토 금동불상광배와의 관계
- I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시대는 중국의 南北朝·隋·初唐代 및 일본의 飛鳥·奈良시대와 병행하는 시기로 정교한 형태의 금동일광삼존불상이 다수 제작되었다. 이들 불상의 광배에는 발원자 및 조성배경을 기록한 造像記가 남아 있는 예가 많아, 편년과 불상의 존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금동불상의 경우, 조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연대의 異見과 함께 몇몇 像에서 제작국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동광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존하는 금동광배의 경우 6세기작이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6세기 금동광배를 중심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그 동안 광배연구는 불상 뒤쪽에 위치하는 조형적 한계성과 佛身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연구경향으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개별 광배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제작국에 대한 양식 고찰과 변화, 새롭게 확인된 유물에 대한 연구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편이다.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초기 광배 연구에서는 광배의 발생과 형성, 그리고 형식 변화 및 광배에 표현된 莊嚴의인 요소에 대한 시대별 변천과정과 화염문의 문양사적 原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¹ 백제 광배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虺龍文系 화염문의 특징과 전개양상을 고찰하기도 하였다.² 또한 발굴 증거로 인해 새롭게 출토된 광배가 보고되었고,³ 이에 따른 결과로 광배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후 중국 山東지역 금동일광삼존불상과의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⁴ 한편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金銅甲寅年王延孫銘光背 제작국에 대해서 기존 고구려 제작설과는 달리 백제 제작설을 새롭게 제기한 논의도 있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6세기 금동광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광배 문양 중 특히 화염문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분석을 통해 제작국 및 편년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염문을 도면화하였고, 절대연대를 가진 중국 금동광배와 화염문, 조상기의 명문 내용, 본존불상의 양식 등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광배를 통해서 삼국시대 불상을 편년하는데 그 자료로서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광배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삼국시대 광배에 관련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輕部慈恩, 「百濟の舊都, 熊津發見の百濟式石造光背について」, 『考古學雜誌』第20卷3號(日本考古學會, 1930); 石田茂作, 「佛像光背の種類と變遷」, 『考古學雜誌』第30卷2號(日本考古學會, 1940); 大西修也, 「百濟佛の立像と一光三尊様式」, 『MUSEUM』315號, 東京国立博物館, 1977); 小杉一雄, 『中國文様史の研究-殷周時代爬虫文様展開の系譜-』(新樹社, 1959); _____, 『中國美術史-日本美術の原流-』(南雲堂, 1986); 金明淑, 「韓國佛像光背의 様式研究」, 『梨大史苑』16(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1979); 裴珍達, 「敦煌 莫高窟 編年 試論-佛光 形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65(국립중앙박물관, 2000); 李延恩, 「北朝裝飾紋樣研究-5,6世紀中原北方地區石窟裝飾紋樣的考古學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2002).

2 趙容重, 「益山 蓮洞里 石造如來坐像 光背의 圖像研究」, 『美術資料』49(1992), pp. 1-39; 郭東錫, 「百濟 佛像의 虺龍文系 火焰光背」, 『신라문화』17·18합집(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0), pp. 35-54; _____, 「金銅製一光三尊佛의 系譜-韓國과 中國山東地方을 中心으로-」, 『美術資料』51(1993), p. 22.

3 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陵寺」(2000); 金容民, 「扶蘇山城 東門址 出土 金銅光背」, 『美術資料』57(1996); 성윤길, 「扶餘 官北里出土 金銅光背」, 『美術資料』74(2006).

4 광동석, 위의 논문; 金理那,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涉』(藝耕, 1996); 金春實, 「中國 山東省 佛像과 三國時代 佛像」, 『미술사논단』19(한국미술연구소, 2004); 梁銀景, 「景四年辛卯銘 金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先史와 古代』26(한국고대학회, 2005); _____, 「중국 山東지역 불상과 한국 삼국시대 불상의 교류 관계」, 『강좌미술사』26(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문명대·최성은·양은경·劉鳳君, 『고구려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동북아역사재단, 2007).

5 갑인년왕연손명광배 연구는 일민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熊谷宣夫, 「甲寅年王延孫造光背考」, 『美術研究』209號(東京文化財研究所, 1960); 吉村 恰, 「法隆寺獻納御物王延孫造光背考」, 『佛教藝術』184號(毎日新聞社, 1990). 최근 소현숙은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백제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蘇鉉淑, 「法隆寺 獻納寶物 甲寅銘王延孫光背 研究-장엄의장을 통한 연원과 제작국 고증-」, 『韓國古代史研究』54(한국고대사학회, 2009).

Ⅱ.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의 양식 고찰

이 장에서는 절대연대가 있는 중국 금동불상 및 광배와 양식 비교, 조상기의 고찰을 통해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의 편년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산둥성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불상이 삼국시대 6세기 금동불상 및 광배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보이는 것이 많아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6세기 금동광배는 모두 9개 정도인데, 화염문의 형식을 통해서 제작국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고구려와 백제작으로 구분한 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염문은 광배 내 다른 문양 보다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종교적 교주로서의 위엄과 신성성 그리고 초월적인 힘의 구상화를 표현하는 광배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극대화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⁶ 따라서 광배 내 다른 어떤 문양 보다 중심적 위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화염문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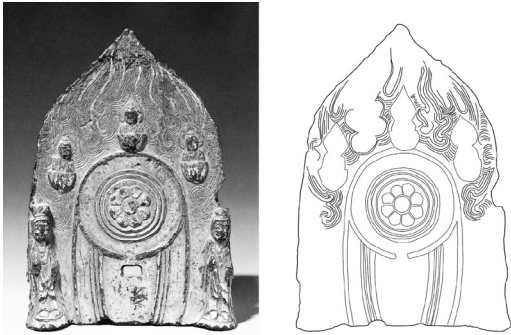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은 조상기이다. 중국의 경우 대좌에 연이어 혹은 광배 뒷면에 조상기를 기록하지만 우리나라 삼국시대 금동광배의 경우에는 대부분 광배 뒷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상기는 해당 불상의 제작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삼국시대 6세기 불상광배 중에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확인된다. 따라서 제작연대 추정에 있어서 하나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일광삼존불상의 특성상 광배만이 아니라 본존불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통한 불상의 양식과 편년을 수용하면서, 각각의 금동광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⁶ 많은 불교 경전에서 세상 모든 곳에 빛 혹은 光明을 비춘다는 의미의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광명은 정각을 이룬 인물로서의 범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기능으로, 神異한 모습, 초월적인 힘이 구상화되는 것이 광배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 석가모니의 광명은 경전 상에서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필자가 제기한 부분만을 말한다. 첫째, 석가모니 특상인 32상의 하나로써의 광명, 둘째, 석가모니 신통력의 상징으로서의 광명, 셋째, 석가모니의 설법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광명을 설명하고 있다. 성윤길, 「삼국시대 金銅光背 연구」(충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0, 8), pp. 5-10.

1. 고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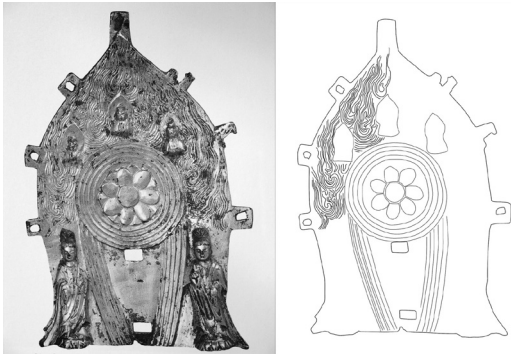
1) 금동建興5년명광배

6세기 고구려 불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그동안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을 생각하였다.⁷ 그러나 금동建興5년명광배를 광배 문양과 조상기의 명문을 통해서 연대를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⁸



도 1 금동建興5년명광배, 536년 추정, 12.4cm, 국립청주 박물관 소장(좌: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고대도시 유적 중원경』(2011), p. 28 전제, 우: 필자 작성)

이 광배는 두·신광, 화불 3구, 좌·우 협시보살 등이 광배와 일주된 형식이다. 화염문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말린 고사리형에 가까우나 광배 상단에 일부 ‘U’자형도 확인된다(도 1). 건흥5년명광배와 비교할 수 있는 중국 광배로는 일본 根津미술관 소장 普泰2년명(532) 금동광배를 들 수 있다. 외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보주형 광배의 화불 3구, 좌·우 협시상 상단 전체에 표현된 화염문, 보주문 등 장식없는 두·신광의 구획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도 2).



도 2 普泰 2년(532)명 금동삼존불상광배, 21.6cm, 根津미술관 소장(좌: 『百濟 泗泚時期 文化의 再照明』(2005), p. 262 전제, 우: 필자 작성)

건흥5년명광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화염문에 표현된 수평선문이다. 이 수평선문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건흥5년명광배 외에 금동永康7년명광배, 금동癸未명삼존불입상광배, 금동辛卯명삼존불입상광배 등 고구

⁷ 일광삼존불상의 경우 하나의 광배에 삼존불을 결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편의에 따라서 ~광배, ~불상광배 혹은 ~명광배로 약술하고, 불상 또한 ~명불상으로 약술한다.

⁸ 길이 12.4cm로, 명문은 다음과 같다. 黃壽永·秦弘燮·鄭永鎬, 『韓國佛像三百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p. 32. “建興五年歲在丙辰 佛弟子淸信女上部 兒奄造釋迦文像 願生生世世值佛聞法一切衆生同此願”



도 3 쌍영총 널방북벽 묘주부부, 5세기 후반, k76, 259.0×287.0cm, 고구려고분벽화 모사도 (국립광주박물관,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2005), p. 32 전제)

워넝은 선문이 확인되는데(도3), 이는 수평선문과 유사한 기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마총 벽화의 문양도 덩굴문양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빈 공간없이 장식하고 있는 등, 비슷한 시기에 금동광배와 고분벽화에서 유사한 표현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평선문의 경우 중국 광배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太和원년명(477) 석가문불좌상, 미국 넬슨갤러리 소장 太和18년명(494) 尹守國造석가문불상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¹⁰ 이들 상 조상기에는 건흥5년명광배에서 보이는 ‘釋迦文像’과 거의 동일한 ‘釋迦文佛’과 ‘釋迦文石像’이라는 명문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 개인소장의 皇興5년명(471) 금동불입상에서는 ‘淸信士’ 혹은 ‘淸信士女’라는 명문이 보이고 있어서 역시 건흥5년명광배의 “淸信女”와 공통된 명문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釋迦文佛’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 중 묵서명에 의해 영락 18년(408)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덕흥리고분의 피장자인 鎭이 ‘釋迦文佛弟子’임을 자처하고 있어서 주목된다.¹¹ 408년은 중국 태화연간(477~499)보다 더 앞서는 시기로, 매우 이른시기부터 ‘釋迦文佛’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건흥5년명광배는 根津미술관 소장 普泰2년명(532)광

려작이라고 추정되는 광배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 수평선문은 삼국시대 6세기 일광삼존불상이 거의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국 추정에 있어 주목되는 문양으로 판단된다.

수평선문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되는데, 즉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雙楹塚의 널방 북벽 묘주부부 뒷면 벽화와 6세기 초로 편년되는 鎧馬塚 널방천정고임 1단의 벽화 중 덩굴문양이 그것이다.⁹ 쌍영총은 묘주부부 뒤쪽 공포 상단에 표현된 수평으로 긴 공간 내부에 파상형 문양 내부를 촘촘하게 채

⁹ 덩굴문양을 당초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인화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에서는 권초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 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덩굴문양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¹⁰ 金申 編著,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珍品纪年图鉴-』(太原市: 山西出版集團·山西人民出版社, 2007), p. 406; 金申, 『中国历代纪年佛像图典』(1994, 文物出版社), p. 87 참조.

¹¹ 박운선, 「고구려의 불교 수용」, 『韓國古代史研究』35(한국고대사학회, 2004), p. 210.

배와 형식이 동일할 뿐 아니라 유사한 시기의 중국 금동광배에서 보여주는 화려함 보다는 뒤에서 살펴 볼 관북리 금동광배처럼 간단한 광배 장식 패턴 즉 두광과 신광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6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永康7년명광배, 癸未명삼존불입상광배, 辛卯명삼존불입상광배 등에서 모두 두광과 신광에 덩굴문양과 줄기달린 꽃봉오리, 보주문이 표현되었다는 점과 비교되는 것이다.

연가7년명여래입상광배를 보더라도 본존불 주위에 의도적인 두광과 신광이 좌·우대칭으로 표현되었고, 나머지 광배 외연에는 화염문만을 표현했음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가7년명여래입상이 539년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한 나머지 그 동안 건흥5년명광배를 아무런 비판없이 너무 늦은 시기로 편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¹²

따라서 발견 장소가 충북 증원군이라는 당시 지리적 상황과 고구려작에서만 보이는 수평선문이 확인되고 있는 점, 백제 현존 유물의 경우 연호없이 간지만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흥5년명광배는 고구려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釋迦文像’과 ‘淸信女’라는 명문과 간단한 두·신광 문양 패턴의 광배 형식이 비교적 초기에 해당되는 중국 광배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제작연대를 기존 596년이 아닌 536년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금동延嘉7년명여래입상

이 불상은 ‘高麗國樂良東寺’라는 명문이 있어 고구려작임을 알 수 있다.¹³ 높은 육계와 타원형의 얼굴모습, 좁은 어깨, 얼굴과 비슷한 손의 크기, 시무외·여원인의 수인, 통견 대의에 좌·우 옷주름의 뺨침 등의 양식이 6세기 초에 유행하였던 중국 북위 금동불과 유사하다.¹⁴ 그리고 이 상의 ‘북위식 복제’¹⁵는 제작연대가 6세기 초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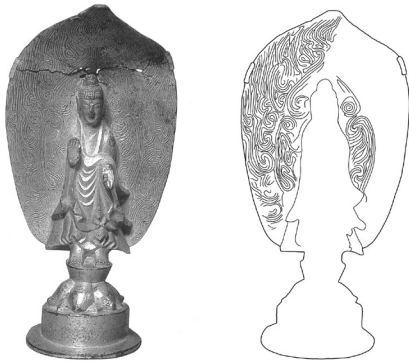
광배는 연화문 등 장식이 없고 선각의 화염문만 있는 매우 간단한 형태이다. 하지만

¹² 최근 문명대는 건흥5년명광배의 제작연대를 596년 보다 한 주갑 올려서 536년일 가능성이 짙다고 하였다. 산동성 제성시박물관의 동위 금동삼존불입상과 광배, 3화불, 협시보살, 두신광의 3조선 원광 등이 거의 일치하고 머리광배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536년 제작설을 강조하였다. 문명대, 「고구려 금동불상과 중국 산동 금동불상 교류」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동북아역사재단, 2007), p. 30.

¹³ 길이 16.2cm로, 명문은 다음과 같다. 張忠植, 「延嘉七年銘 金銅佛像再考」 『東岳美術史學』創刊號(東岳美術史學會, 2000), p. 21. “延嘉七年歲在己未高麗國樂良東寺主敬弟子僧演師徒冊人共造賢劫千佛流布第二十九因現義佛比丘法類所供養”

¹⁴ 金春實, 「三國時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6세기 말~7세기 초를 중심으로-」, 『美術資料』55(1995), p. 14.

¹⁵ 북위식 복제에 대해서는 최경원의 논문에 자세히 언급되었다. 최경원, 「북위 불상복제의 중국화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미술사연구』8(미술사연구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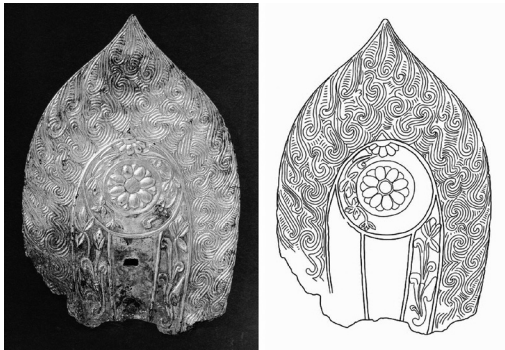


도 4 금동 延嘉7년명여래입상, 539년, 16.2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좌: 강우방·곽동석·민병찬, 『佛敎彫刻』I(2003), p. 165 수정 후 전재, 우: 필자 작성)

본존불 주변에 일부 고사리형 화염문을 거칠고 투박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얼핏 보면 두·신광이 없는 듯 보이지만, 불신 좌·우측에 상·하단이 말린 듯한 형태가 불신을 감싸듯 길게 표현되어 추상적이지만 두광과 신광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도 4). 이 광배와 비교할 수 있는 중국 광배를 찾기는 어렵다.¹⁶ 같은 시기 중국 광배에서는 두·신광을 구획하고 그 내부에 갖가지 문양으로 장엄한 경우가 많은 반면 연가7년명광배는 그렇지 않아 그 만큼 한국적인 광배 화염문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광배의 제작연대는 아무런 문양없이 광배 전체적으로 뾰뾰하게 화염문만을 표현했다는 점과 북위식 착의법을 보이는 본존불상의 양식, 명문 중 연가7년 己未라는 간지를 통해서 539년이라는 연대가 인정된다.¹⁷



도 5 금동 永康7년명광배, 551년, 22cm, 평양중앙역사박물관소장(좌: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2006), p. 79 전재, 우: 필자 작성)

3) 금동 永康7년명광배

평양 평천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광배는 좌측 하단을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도 5).¹⁸ 본존불이 결실되었고, 두·신광에 6세기 중반경부터 확인되는 덩굴문양과 줄기달린 꽃봉오리가 표현되었다. 보주

¹⁶ 양은경은 산동성 박흥 高昌寺유적지에서 출토된 동위대 불입상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양은경, 『중국 산동성 불상』(주류성, 2010), p. 311.

¹⁷ 김리나, 위의 논문, pp. 94-96.

¹⁸ 길이 22cm로, 명문은 7행 58자로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2006), pp. 78-79. “永康七年歲次辛□ 爲亡母造彌勒尊像□□ 福願令亡者神昇兜□ 慈氏三會 之初悟无生□究竟必昇□ 提若有罪右願一時消滅 隨喜者等同此願”

문의 경우 건흥5년명광배와 연가7년명광배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 광배에서는 두광 구획선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6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역시 화염문 사이에 수평선문이 확인되어 고구려작으로 추정되고, 화염문은 우리나라 광배 중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광배와 가장 유사하다. 화염문은 고사리형으로 계미명광배와 비교했을 때, 영강7년명광배는 정연하면서도 정확하고 또렷하게 상·하 이중으로 표현된 반면 계미명광배는 병렬식으로 나란히 표현되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양감이 느껴지는 연화문과 덩굴문양 그리고 신광 구획선 내부 문양의 조형미는 비교적 분명하고 또렷한데, 이는 연가7년명불상에서도 감지된다. 연가7년명불상 대의자락을 보면 'U'자형 옷주름과 그 주변 옷자락이 깊이감이 있어, 불상과 옷주름이 한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느낌이다. 이러한 조형미가 영강7년명광배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은 역동적이고 강한 고구려의 문화적 성격이 이 광배에서도 함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영강7년명광배의 화염문 표현기법과 비교할 수 있는 중국 불상광배는 미국 프리어갤러리 소장 韓□□造觀世音像이다. 이 상은 조상기를 통해 520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¹⁹ 비록 화염문의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화염문 사이에 수평선문이 빼곡히 표현된 기법은 동일하다. 그리고 영강7년명광배에서는 6세기 전반 광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두광의 덩굴문양과 신광의 줄기달린 꽃봉오리, 보주문이 새롭게 등장하여 장식성을 가미했다.²⁰ 따라서 영강7년명광배의 '辛□'(辛未)라는 간지에 해당하는 연대는 기존의 견해대로 551년이라고 생각된다.

4) 금동癸未명삼존불입상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은 원통형 3단 복판 연화문 대좌 위에 본존불이 있고, 좌·우

¹⁹ 金申 編著,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珍品纪年图鉴-』, p. 442. 명문은 다음과 같다, “神龜三年三月一日 佛弟子 韓□□愿爲亡父兒孝内親造觀世音像一區”

²⁰ 金恩英은 보주가 조형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갑인년왕연손명광배라고 하였다. 金恩英, 『寶珠의 圖像과 特徵』(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46. 하지만 영강7년명광배 두광 구획선에 있는 형태가 연화좌 위에 삼각형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김은영의 위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주문의 경우에는 본 고에서는 생략하였으나, 6세기 후반~7세기의 석조광배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이른 시기에는 두광 구획선에 걸쳐 있던 것이 시기가 내려갈 수록 두광 구획선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산사면석불 중 남면 여래좌상 광배나 익산연동리석조광배에서 보주문은 두광 구획선을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 6 금동癸未명삼존불입상, 563년, 17.5cm, 간송 미술관소장(좌: 강우방,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1995), p. 114 전재, 우: 필자 작성)



도 7 산동성 용화사지 출토 昧妙造像, 동위, 21.5cm, 산동성 박흥현박물관소장(좌: 張淑敏等, 『山東博興銅佛像藝術』(2005), p. 72 전재, 우: 필자 작성)

협시보살은 광배와 一鑄된 형식이다.²¹ 본존 불은 높은 육계에 소발의 머리, 장방형의 상호, 통견의 '복위식 착의법', 본존불 대좌 끝 자락 좌·우 뺨침의 과장 등이 중국 동위양식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도 6).²²

두광 바깥쪽에는 화염문이 넓게 표현되었다. 화염은 고사리형으로 영강7년명광배와 유사하다. 두·신광 내 덩굴문양과 줄기달린 꽃봉오리도 영강7년명광배에 비해 곡선화되고 가지 표현도 생략되었다. 영강7년명광배가 전체적으로 보다 명료하고 힘있는 선을 구사했다면 계미명광배는 유려하고 부드러운 화염문 곡선을 보인다. 계미명불상 제작국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다.²³ 우선 계미명불상은 광배 내에서 수평선문이 확인되어 고구려작으로 추정해 보고자한다.

화염문을 중국 광배와 비교하면 산동성 박흥현박물관소장 용화사지 출토 昧妙造銘金동불상의 그것과 유사하다(도 7). 옆으로 나란하게 배치된 병렬식 고사리형 화염문, 형식화된 덩굴문양과 줄기달린 꽃봉오리, 두광 구획선에 있는 보주문, 역사다리형의 본존불 대좌반침 등이 동일하나, 다만 계

²¹ 길이 17.5cm로 명문은 다음과 같다. “癸未年十一月一日 寶華爲亡父趙□人造”, 조상 명문을 “癸未年十一月一日 寶華爲亡父趙國人造”로 판독한 경우도 있다. 黃壽永·秦弘燮·鄭永鎬, 1982, 앞의 책, p. 42.

²² 김리나, 앞의 논문, pp. 98-102.

²³ 계미명불상의 제작국에 대해서 황수영·조용중·松原三郎·大西修也 등은 백제작으로, 문명대·강우방·곽동석 등은 고구려설을 주장하고 있다. 郭東錫, 『金銅製一光三尊佛의 系譜-韓國과 中國 山東地方을 中心으로-』, 『美術資料』51(1993), p. 11. 특히 조용중은 광연부가 연동리광배나 飛鳥광배보다 훨씬 넓어졌고, 화염문도 곡선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62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趙容重, 『百濟 佛像光背에 關한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p. 80-83. 하지만 조용중은 광배의 형식만 고려한 것으로, 본존불 대의 착의법만 보더라도 이 불상은 600년을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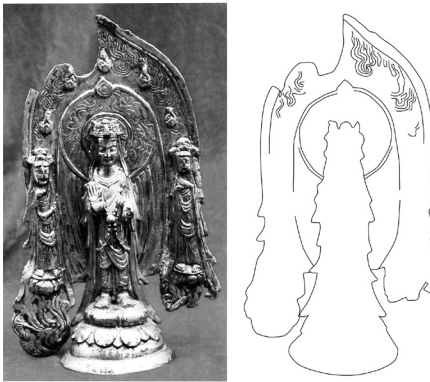
미명광배에서는 화불이 없다. 또한 본존불상 좌·우로 뻗은 옷주름이 약간 과장된 듯 하여, 역시 두 상이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본존상 상호에서 보여주는 턱선의 둥그스런 형태, 연가7년명상보다 적당히 벌어진 등근 어깨선, 영강7년명광배 보다 부드러워지고 정돈된 화염문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상은 동위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계미년 563년에 제작되었다는 기존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²⁴



도 8 금동보살삼존입상, 6세기 중후반, 8.8cm, Leeum소장(좌: 강우방·곽동석·민병찬, 『佛敎彫刻』I(2003), p. 181 전재, 우: 필자 작성)

5) 춘천 출토 금동보살삼존입상

춘천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상은 높이 8.8cm로 광배와 보살삼존상을 一鑄한 형식이다(도 8). 중앙에 위치한 보살상은 三花形의 보관을 쓰고, 좁은 어깨, 무릎 위에서 ‘X’자로 교차하는 천의 표현, 좌·우로 길게 뻗은 과장된 옷자락은 6세기대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구형의 대좌는 금동정지원명석가여래삼존여래입상과 많이 닮았다.



도 9 산동성 제성시 임가촌진 청운촌 출토 삼존보살상, 복제, 17cm, 제성시박물관소장(좌: 劉鳳君, 『山東佛像藝術』(2008), p. 57 전재, 우: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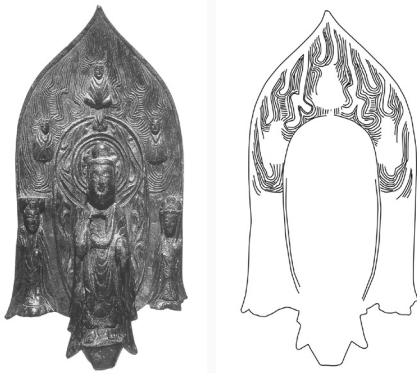
광배에는 고사리형 중심 화염문이, 두·신광 구획선은 장식없는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화염문의 경우 영강7년명광배, 계미명광배 보다 조금 평판적이나 약간 굴곡화된 곡선을 보인다. 수평선문은 확인되지 않으나 고사리형 화염문이 중심인 점, 계미명 본존상과 유사한 중앙 보살상 옷주름의 좌·우 뻗침, 광배 전체적으로 표현된 화염문 등을 고려하면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²⁵

²⁴ 이 불상이 연화가 없고 간지명으로 시작하여 백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수평선문의 존재와 본존불의 복위식 착의법에서 보여주는 옷주름의 좌·우 뻗침 등으로 이 상을 고구려작으로 추정하였다.

²⁵ 강우방·곽동석·민병찬, 『불교조각』(솔, 2003), pp. 180-181; 郭東錫, 앞의 논문, p. 9.

이 광배와 비교할 수 있는 중국 불상광배로는 산둥성 諸城縣 林家村 출토 금동보살삼존상이 있다(도 9). 화염문은 굴곡이 약간 심한 ‘ㄴ’형이다. 북제(550~577)로 편년되고 있는 이 상은 좌·우뺨침 형태와 매우 평판화된 광배의 형식 등에서 춘천 출토 금동보살삼존상광배와 거의 흡사하고, ‘X’자형 천의 위에 영락장식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다른 금동보살상으로는 일본 개인 소장 금동관음보살상이 있는데, 단독의 보살상으로 둥근 원형 3개로 장식된 보관에 관대를 드리우고 무릎 위에서 ‘X’자로 교차하는 천의, 과장되게 뺨은 좌·우 옷주름 등이 유사하다. 다만 본존상만 있다는 점, 다리가 짧아보이는 단신에 ‘X’자형 천의 위에 영락장식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광배의 경우 아무런 장식이 없는 두·신광 구획선과 평판적인 고사리형 화염문이 금동보살삼존상광배와 유사한 형식이다. 일본의 관음보살상은 동위(534~550)대로 편년되고 있어서²⁶ 산둥성 諸城縣 林家村 출토 금동보살삼존상과 함께 춘천 출토 금동보살삼존상 제작연대 추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상의 제작연대는 동위와 북제 사이로 추정되어 6세기 중반~후반 사이에 위치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6) 금동辛卯명삼존불입상



도 10 금동辛卯명삼존불입상, 571년, 17.5cm, Leeum소장(좌: 강우방·곽동석·민병찬, 『佛教彫刻』I(2003), p. 177 수정 후 전재, 우: 필자 작성)

황해도 곡산군 화촌면 봉산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²⁷ 이 상은 본존불은 높고 동그란 육계, 팽만한 상호, 통견으로 가슴 아래로 긴 ‘U’자를 그리며 내려진 옷주름, 대의자락이 왼쪽 어깨로 바로 넘어가는 착의법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도 10).²⁸

광배는 두·신광, 3구의 화불과 화염문(으로 구성되었다. 두광에는 덩굴문양과 단

²⁶ 金申 編著, 앞의 책, p. 454.

²⁷ 黃壽永·秦弘燮·鄭永鎬, 앞의 책, p. 33; 梁銀景, 『景四年辛卯銘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先史와 古代』23(2005), p. 37; 黃壽永·秦弘燮·鄭永鎬, 앞의 책, 33쪽에는 15.5cm로, 삼성미술관 리움 인터넷홈페이지에는 18cm로, 양은경은 17.5cm(양은경, 앞의 논문, p. 38)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삼성미술관 리움의 견해에 따른다.

²⁸ 金春實, 『中國 山東省 佛像과 三國時代 佛像』, 『미술사논단』19(한국미술연구소, 2004), pp. 7-44. 이러한 복제를 ‘북제식 북제’라 하였으나, 동위시기 불상에서도 위와 같은 착의법이 확인되어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 11 산동성 諸城市 林家村鎮 靑雲村 출토 금동일광삼존불입상, 동위, 16cm, 제성시박물관소장(양은경, 『중국 산동성 불상』(2010), p. 164 전제)

판 8엽 연화문이, 신광에는 즐기달린 꽃봉오리가 장식되었는데, 모두 간략화 되었다. 또한 영강7년 명광배와 계미명광배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광 구획선 상단에 보주문이 확인된다. 화불 3구는 조금씩 다른데, 중앙 화불은 결가부좌한 것처럼 표현한 반면 좌·우 화불은 무언가에 둘러싸여져 있는 몸만을 표현하였다.²⁹ 광배 뒷면에는 8행 6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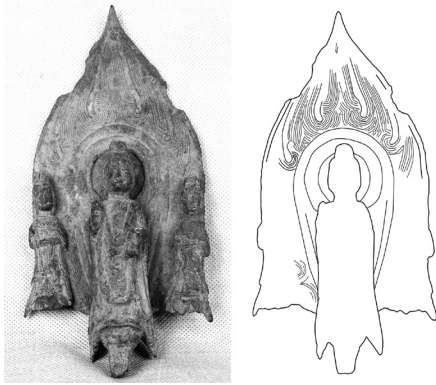
화염문은 이전과는 다른 변형되고 굴곡된 긴 ‘U’자형이다. 앞 시기의 화염문 보다 굴곡화되었지만 직선화된 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수평선문이 굴곡된 ‘U’자형의 화염문 사이에서 확인되어 이 불상광배 또한 고구려에서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광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는 동위(534~550)로 추정되는 산동성 제성시 출토 금동삼존불상을 들었다(도 11).³¹ 하지만 이 상은 부드럽게 늘어진 긴 ‘U’자형과 고사리형이 결합된 형태인 반면 변형 ‘U’자형의 굴곡된 형태와 함께 빈 공간이 중간중간 보이는 신묘명광배와 약간 차

²⁹ 강희정은 건흥5년명광배와 경4년신묘명불상광배에 표현된 것은 화불이 아니라 화생상으로 보았다. 화불 상반신이 노출되지 않고, 손 모습도 확인되지 않으며, 삼국시대 연화대좌의 경우, 복련좌형태인데 반해 두 광배에 표현된 화불 대좌는 양련좌라는 점 등을 들어 화불이 아니라고 하였다. 강희정, 「고구려 화생상(化生像)의 기원과 의미」,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서울, 사회평론, 2006), p. 23. 그러나 태화연간(477~499)에 제작된 釋迦文佛鎔金동불좌상광배의 화불 3구 역시 양련좌이다. 따라서 연화좌의 형태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건흥5년명광배 화불의 경우 상반신이 완전히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보주형 광배를 갖추고 있고, 건흥5년명광배를 제외한 조상기에서 ‘諸佛’이라는 명문이 확인되며 또 몇 예를 제외하면 모두 ‘석가문불’이라는 존호가 보이기 때문에 이는 화생상이 아니라 화불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³⁰ 명문은 다음과 같다. 黃壽永·秦弘燮·鄭永鎬, 앞의 책, p. 33. “景四年在辛卯比丘道 □共諸善知識那婁 賤奴阿王 阿土居五人 共造無量壽像一軀 願亡師父母生生心中常 值諸佛善知識等值 遇弥勒所願如是 願共生一處見佛聞法”

³¹ 양은경은 산동성 박흥 용화사유적지 출토 매묘조금동불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양은경, 앞의 책, p. 311.



도 12 산동성 용화사지 출토 一佛二菩薩立像, 복제, 16.3cm, 산동성 박흥현박물관소장(좌: 張淑敏等, 『山東博興銅佛像藝術』(2005), p. 72 전제, 우: 필자 작성)

이가 있다. 계관형 보살상의 형식은 유사하지만³² 두·신광 구획선에 장식이 없는 점도 차이가 있다.

보다 비교되는 예로 최근 산동성 박흥 용화사지에서 출토된 一佛二菩薩立像 광배가 있는데, 화염문의 경우 한번의 꺾임이 있는 변형 ‘U’자형으로 유사한 편이다(도 12). 협시상에서의 차이를 제외하면 본존불상의 경우 상호가 팽만하고 옷주름 역시 좌·우로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고, 두·신광 형태 또한 구획선만 있어 다르지만 광배 화염문이 표현되지 않은 빈공간이 중간중간 보이며 편

년도 용화사지 출토 상이 북제(550~577)로 추정되고 있어서³³ 신묘명광배 조상기 중 辛卯는 기존 571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에 대한 연구에서 명문에 보이는 ‘賤奴’를 들어 이 상이 남조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³⁴ 즉 중국 남조국가인 梁 무제 등 최고 지배계층 등이 자신의 몸을 捨身하였던 예를 들어 ‘賤奴’라는 이름은 俗名이 아닌 法名으로 사신한 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긴 하지만, 명문에서 확인되는 비구 ‘道□’, ‘那婁’, ‘賤奴’, ‘阿王’, ‘阿土居’ 등 5명 중 유독 ‘賤奴’만 사신한 귀족의 범명이라면 비구인 ‘道□’는 제외하더라도 ‘那婁’, ‘阿王’, ‘阿土居’ 3명도 사신한 인물들인지, ‘賤奴’만 사신한 귀족 출신 인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명문 그대로, 비구 ‘道□’는 돌아가신 스승과 부모는 諸佛을 만나는 追福의 기원을, 선지식 4명은 미륵을 만나기를 기원했던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³⁵ 비구 ‘道□’와 선지식 4명의 기원 대상과 소망이 각각 달랐다면, ‘賤奴’에 대한

³² 최성은은 경4년신묘명불상과 산동성 제성시 출토 금동삼존불상 좌·우협시상 보관을 계관형이라 칭하였다. 최성은, 「고구려 불상과 산동지역의 북위 말~동위 불상」, 『고구려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동북아역사재단, 2007), p. 70.

³³ 張淑敏等 著, 『山東博興銅佛像藝術』(台北市, 藝術家出版社, 2005), p. 98.

³⁴ 양은경, 위의 논문, pp. 45-49.

³⁵ 선지식이란 본래 박학다식하고 높은 덕행을 구하는 賢者를 이르는 것으로 산스크리트어 Kalyamitra에서 유래한 말인데 나쁜 업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게 하는 이를 가리킨다. 中村 元, 『佛敎語大辭典』(東京書籍, 1984), p. 850. 선지식 ‘那婁’, ‘賤奴’, ‘阿王’, ‘阿土居’ 4명은 이 불상을 조성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불상 발원자 중 유독 ‘賤奴’만 사신한 귀족의 범명이라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미가 분명해 진다. ‘賤奴’를 비롯한 선지식 4명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보다는 현실에서의 탈출 혹은 도피를 하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미래불인 미륵을 만나 청법받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추정된다.³⁶

2. 백제

1) 부여 관북리 출토 금동광배

최근 백제 불교 및 조각사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은 발굴조사로 인해 새로운 자료가 많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에는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금동광배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다.³⁷ 이 광배는 본존상이 결실된 상태로 광배 외연에 천인상을 결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구공 6개가 남아 있다(도 13). 이런 형태의 광배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외형이 북위 普泰2년명(532) 금동광배와 매우 유사하다.

관북리광배는 두·신광과 화염문만으로 구성되었다. 두·신광 구획선은 장식이 없고, 두광 안쪽에는 13엽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화문 연판은 6세기 초반의 북조계 영향으로 보이는 부여 용정리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와 가장 유사하다.³⁸ 원형두광 바로 아래에 2개의 방형 투공이 있어, 본존불은 아마도 입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배 전체적으로는 화염문이 표현되었는데, 화염문만을 도드라지게 융기시킨 점에서 선각의 다른 6세기대 불상광배와는 다른 양상이다. 화염문은 기본적으로 비스듬히 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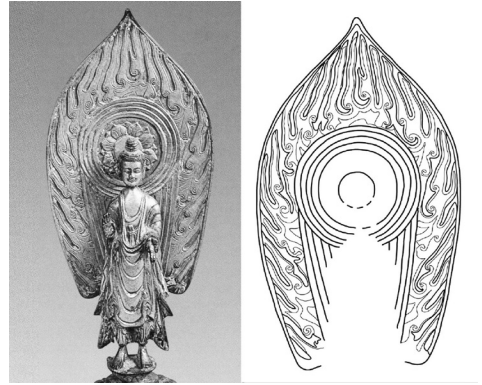
³⁶ 최근 고구려 제작으로 추정되는 광배가 소개되었다. 최성은이 소개한 프리어미술관 소장 금동광배의 경우 화염문 사이에 일부 수평선문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광배도 고구려 제작으로 추정되고, 최성은 또한 570~80년의 고구려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성은, 『프리어미술관 소장 金銅光背에 대한 考察-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 불상 광배와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CHINA 연구』12,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2), pp. 76-77.

³⁷ 잔존 최대길이는 11.9cm이고, 광배 외연의 방형 결구공을 제외한 최대폭은 8.2cm, 결구공 포함 최대폭은 10.4cm이며, 두께는 0.25~0.3cm이다. 성윤길, 앞의 논문, pp. 57-80.

³⁸ 부여 용정리사지에서 출토된 이 수막새는 부여, 공주에서 출토된 수막새중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형태이다. 보고서에는 6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扶餘郡, 『龍井里寺址』(1993), p. 69, 김성구는 웅진도읍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金誠龜, 『百濟의 瓦塼』, 『百濟의 彫刻과 美術』(공주대학교박물관, 1991), p. 317. 조원창도 김성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趙源昌, 『熊津遷都後 百濟瓦當의 中國 南北朝要素 檢討-北朝系 瓦當을 中心으로-』, 『百濟文化』30(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1), p. 38. 특히 용정리사지에서는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편이 출토되었고, 이 수막새 역시 북조계로 파악되고 있다(趙源昌, 앞의 논문, p. 33. 관북리 금동광배 두광 연화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연화문수막새로 주목된다.



도 13 부여 관북리 금동광배, 6세기 전반, 11.9cm,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좌: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에서 전시까지』(2006), p. 214 전재, 우: 필자 작성)



도 14 정광원년명(520) 관세음입상, 29.84cm, 샌프란시스코동양박물관 소장(좌: 金申 編著,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珍品紀年图鉴-』(2007), p. 443 전재, 우: 필자 작성)

‘山’자형의 三枝형에 가깝운데, 화염문 가장자리에 미세한 음각선을 넣어 장식 효과를 더하였다. 이런 화염문 표현기법은 샌프란시스코동양박물관 소장 북위 정광원년명(520) 관세음상광배(도 14)와 藤井有隣館 소장 북위 정광3년명(522) 금동삼존불입상광배(도 15) 등 북조에서 제작된 광배와 가장 유사하다. 그리고 위 정광3년명(522)불상광배 또한 천인상으로 광배 외연을 장엄하여, 이를 고려한다면 관북리광배의 결구공 또한 천인상 등을 장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정광원년명(520) 관세음상광배의 화염문이 관북리광배와 비교되는데, 화염문만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기법과 상당히 긴 상승형의 불꽃, 화불이 없고, 문양 없이 단순하고 간략화 된 두·신광, 화염문에 음각선을 넣어 장식효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두 광배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다만 결구공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인 광배 분위기는 타오르는 불꽃을 평면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염문과 연화문 그리고 두광과 신광만 있는 광배 문양 배치 구성에서는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북위 희평3년명



도 15 정광3년명(522) 금동삼존불입상광배, 26cm, 藤井有隣館 소장(金申 編著,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珍品紀年图鉴-』(2007), p. 446 전재)

(518) 금동이불병좌상광배와도 일치하고 있다. 관북리광배를 제외한 이들 광배는 모두 북위 제작으로, 관북리광배와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북리광배의 양식이 북조에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백제작 중에서 가장 유사한 광배를 든다면 서산마애불의 본존불 광배를 들 수 있다. 서산마애불 본존불 광배는 비록 보주형이지만 원형의 두광 바깥에 화염문이 표현되었는데, 그 형태가 관북리 광배의 그것처럼 중앙 ‘山’자형이 삼지형에 가깝고 화염문 표현 또한 마애불의 특성도 고려해야하겠지만 선각이 아닌 화염문만 돌출되게 용기시킨 양각으로 관북리광배와 동일하다. 원형 두광 내 연화문도 전체적으로 오각형으로 역시 관북리광배 연화문과 연결될 수 있다. 서산마애불 본존불 광배가 비록 보주형이라 하더라도 연화문과 화염문의 전반적인 형식이 서로 유사함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주문도 역시 관북리와 서산마애불 본존불 광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백제작으로 익산연동리 석조광배가 있다. 이 광배 또한 원형 두광 내 연화문에서 보이는 볼륨감은 서산마애불 중 본존불 광배 연화문과 관북리광배 연화문과 상통하고, 전체적인 오각형의 연화문의 형태에서도 위 두 광배와 흡사하다. 다만 관북리광배에서 보이지 않는 사선형 문양이 익산연동리 석조광배에서 확인되는 점에 대해서는 부여 능사 출토 광배 잔편에서도 이 문양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시기적인 차이로 추정된다. 결국 관북리광배와 서산마애불 본존불 광배, 그리고 익산연동리석조광배가 시기적 선후관계를 보이면서 형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북리광배가 백제작일 가능성은 한층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관북리광배의 제작연대는 6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남조 일변도의 백제 문화적 영향관계 측면을 고려하면 북조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⁹ 백제는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되었지만, 최근 출토되는 고고유물을 보면 풍납토성 발굴에서 북조계의 연화문수막새가,⁴⁰ 익산 왕궁리유적 정원유구에 사용되었던 어린석은 남조 건강궁성 유적 뿐만 아니라 북조 지역인 大同市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고 하겠다.⁴¹

³⁹ 광동석은 “형태면에서 보태2년명광배(532)와 가장 가깝지만, 正光期 제작으로 추정되며, 백제와 가장 가까운 중국 산둥성 북위 정광기 불상양식을 수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사비기 백제 불상이 중국 남조 뿐 아니라 북조의 영향도 함께 받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였다. 광동석, 「百濟 泗泚期 佛像의 特徵과 日本 飛鳥 彫刻과의 관계」, 『百濟 泗泚時期 文化의 再照明』(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14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05, pp. 249-250).

⁴⁰ 국립문화재연구소 보도자료, 「풍납토성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발견」(2008. 11. 26).

⁴¹ 박순발, 「北魏 平城 斷想」, 『百濟學報』3(백제학회, 2010), pp. 81-83.

2) 금동鄭智遠명석가여래삼존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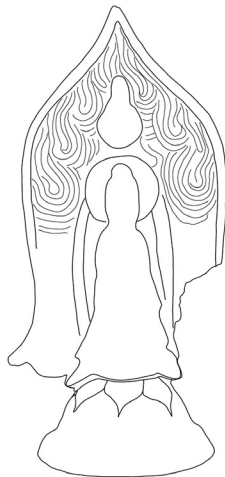
이 상은 본존불과 보살상 그리고 광배가 一鑄된 형식으로 왼쪽(향우) 협시보살이 결실된 상태이다(도 16).⁴² 중앙 본존불은 둥근 육계, 소발의 머리, 좁은 어깨, 신체 비례보다 큰 손, 시무외·여원인의 수인, 대의 속 승기지와 앞 가슴 밑으로 크게 늘어진 ‘U’자형 옷주름을 보이고 있다.

광배는 간단하게 선각으로 두·신광을 구획하였다. 두광 상단에 1구의 화불 이외에는 두·신광에 아무런 문양도 없다. 화불은 하반신이 연화좌에 가려 생략되었고 합장인을 하고 있는 듯하다. 신묘명불상 화불의 경우 옷주름선을 간단하게나마 표현한데 반해, 정지원명불상 화불은 그것마저도 생략하였다. 화염문은 긴 ‘U’자형 화염문을 굴곡지게 표현하였다.

정지원명불상은 전체적으로 간략화된 조형성과 조상기의 ‘鄭’·‘趙氏’ 등 중국식 성씨로 인하여 백



도 16 부소산 송월대 수습, 금동鄭智遠명석가여래삼존입상, 6세기 후반, 8.8cm, 국립부여박물관소장(좌: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1993), p. 102 전제, 우: 필자 작성)



도 17 산동성 용화사지출토 일불이협시상, 동위, 9.6cm, 산동성 박흥현박물관소장(張淑敏 等, 『山東博興銅佛像藝術』(2005), p. 74 전제)

⁴² 부소산성 送月臺에서 1919년(大正 18년) 발견된 것으로 높이 8.5cm의 소규모이다. 關野貞, 『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 1932), p. 67; 輕部慈恩, 『百濟美術』(寶雲舍, 1946), p. 142; 黃壽永·秦弘燮·鄭永鎬, 앞의 책, p. 41. 명문은 다음과 같다. “鄭智遠爲亡妻 趙思敬造金像 早離三塗”

제작인지 의구심이 있어 왔다.⁴³ ‘鄭’·‘趙’氏가 백제 대성팔족에 해당되지 않고, 백제는 연호 대신 간지명을 쓰기 때문에 연호와 간지명이 없는 이 상을 백제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산동성 박흥현 龍華寺址에서 출토된 금동불상 중 정지원명불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一佛二菩薩立像이 있다(도 17).⁴⁴ 이 상은 동위대로 추정되지만 화불 1구, 복련 좌의 대좌받침, 삼존의 구성, 높고 둥근 육계, 긴 상호, 좁은 어깨선에서 이러지는 원통형의 신체비례, 단순한 두광과 신광의 형태의 광배 형식 등 간략화되고 형식화된 조형미가 정지원명불상 및 광배와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또한 같은 용화사지에서 출토된 상 중에는 정지원명불상의 조상기와 유사한 명문이 있는 불상이 확인된다. 孔雀造彌勒像 조상기의 경우 ‘普泰’라는 연호가 있지만 불상조성자+발원대상+불상명+발원내용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普泰二年四月八日 佛弟子孔雀爲亡妻馬□□造彌勒像一軀供養 愿之後□耶”로 제작한 날짜 이하의 내용과 형식, 순서가 정지원명불상 조상기의 내용 형식과 순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⁴⁵ 그리고 정지원명불상 조상기 중 ‘敬造’라는 명문이 용화사지 출토 명문 조상 59점 중 14점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주목된다.⁴⁶ 이 ‘敬造’라는 명문은 중국 불상 중 북조에서 제작된 조상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북위대에서 시작하여 북제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고, 수대를 거쳐 초당대까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용화사지 출토 조상의 명문을 보면 돌아가신 분을 추복하기 위해 제작한 상이 많고, ‘多宝+佛’, ‘觀世音+佛’처럼 발원한 존호명이 ‘존호명+佛’은 극소수이지만, ‘존호명+像’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된다. 이는 우리나라 6세기대 일광삼존불상 조상기에서 보이는 명문과 유사하다. 즉 우리나라 6세기대 일광삼존불상 중 명문 확인이 가능한 것은 7점인데, 그 중에서 ‘第二十九回現義’라는 명문이 보이는 연가7년명불상만 제외하면 나머지 6점은 모두 ‘존호명+像’으로 구성되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⁴⁷

⁴³ 洪思俊, 「百濟砂宅智積碑에 對하여」, 『歷史學報』6(역사학회, 1954), pp. 254-258; 郭東錫, 앞의 논문, p. 14.

⁴⁴ 張淑敏等 著, 앞의 책, p. 74 도49.

⁴⁵ 張淑敏等 著, 앞의 책, pp. 44-47.

⁴⁶ 許水彬, 2005, 「山東博興龍華寺遺址出土佛教遺物分期研究-以鑲金銅造像爲中心」(北京大學 碩士研究生學位論文), pp. 5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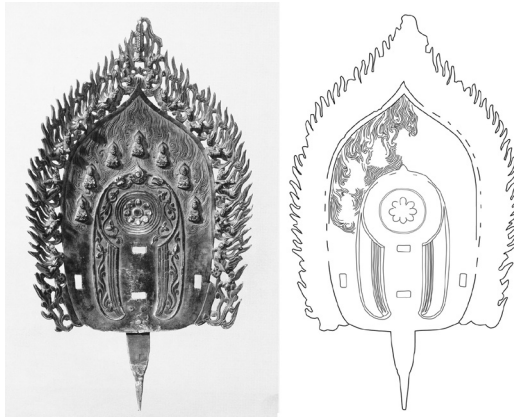
⁴⁷ 金申, 『中國歷代紀年佛像圖典』(1994, 文物出版社), pp. 433-553. 정지원명광배 조상기는 짧고 간략할 뿐 아니라 6~7세기 조상기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金像’이라는 명문이 있어 주목된다. 상의 재료를 나타내는 경우 중국에서는 석상, 백옥상으로 표기하거나 존명을 쓰기 때문에 불상 조상기에 ‘金像’이라고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金像’이라는 명문이 확인되는 것으로는 태화13년(489)명 금동불입상 등 극소수이다. 김신, 위의 책, p. 452. 한편 소현숙은 갑인년왕연손명금동광배 조상기 중 ‘金銅’이라는 명문 용례를 최근 논고에서 다룬바 있다. 蘇鉉淑, 「法隆寺獻納寶物 甲寅銘金銅光背 銘文 연구」, 『百濟文化』44(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1), pp. 111-138.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崔·盧·鄭·王氏 등의 4姓이 唐末까지 山東四姓으로 활약했다는 점이다.⁴⁸ 산동사성 중 정씨가 포함된다는 점 등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한다면 이 정지원명불상은 산동지방에서 제작하여 백제로 전해진 도래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⁴⁹

3) 법륜사헌납보물제196호 금동甲寅年王延孫銘광배

이 광배는 6세기 후반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백제에서 제작되었음을 고찰한 최근의 연구 성과가 있다.⁵⁰ 광배 외연 주악천인상의 천의가 화염문처럼 투조된 형태가 매우 화려하여

예전부터 주목받던 상으로⁵¹ 그 조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고구려작으로 추정되어 왔다(도 18).⁵²



도 18 금동甲寅年王延孫명광배, 594년, 31cm, 동경국립 박물관소장(좌: 『佛敎藝術』190(1990), p. 8 전제, 우: 필자 작성)

광배 화염문을 보면 고사리형이 중심이고 이것을 3개씩 연결시켜 선각의 삼지형을 기본으로 하는 ‘山’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화염 형태는 약간 상이하지만 관북리광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관북리광배는 화염문만을 두드러지게 돌출시켰고, 갑인년명광배는 선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또한 투조기법

⁴⁸ 申採湜, 『東洋史概論』(三英社, 1993), p. 261.

⁴⁹ 최근 최성은은 정지원명불상의 협시보살상 계관형 머리가 건흥5년명광배 우협시보살입상과 경4년명불상 우협시보살입상의 머리와 같은 형식으로 다른 백제 보살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산동→고구려→백제로 이어지는 백제 조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고구려에서 제작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최성은, 앞의 논문, p. 74.

⁵⁰ 蘇鉉淑, 「法隆寺 獻納寶物 甲寅銘王延孫光背 研究-장엄의장을 통한 연원과 제작국 고증-」 『韓國古代史研究』 54(한국고대사학회, 2009); 소현숙, 위의 논문, p. 111-138.

⁵¹ 명문은 다음과 같다. 東京國立博物館, 『特別展 法隆寺獻納寶物』(1996), p. 174. “甲寅年三月廿六日弟子 王延孫奉爲現在父母 敬造金銅釋迦像一軀 願父母乘此功德現 身安隱生生世世不經 三塗遠離八難速生 淨土見佛聞法”

⁵² 熊谷宣夫, 「甲寅銘王延孫造光背考」 『美術研究』209(東京文化財研究所, 1960), pp. 223-241. 고구려설은 강우방(姜友邦, 「金銅日月式三山冠思惟像」, 『美術資料』30(국립중앙박물관, 1982), p. 31, 광동석(郭東錫, 앞의 논문, p. 11) 등이 주장하였고, 吉村 脩는 왕연손이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온 중국 남조인이라고 했다.(吉村 脩, 「法隆寺獻納御物王延孫造光背考」, 『佛敎藝術』190(毎日新聞社, 1990), pp. 15-18.

갑인년 왕연손명광배 (594년)	중대통2년 석가상 (530년)	등현 화상전묘 출토 화상전 (6세기 중반)	용문석굴 연화동 남벽외측하층 제2감미 천인상 (북위 후기)	동위 홍화4년 석조삼존불입상 (542년)
				

도 19 羽葆를 지물로 하는 천인상(필자 작성(중대통2년석가상-『文物』(1998, 11期), p. 12, 용문석굴 연화동 남벽외측하층 제2감미 천인상-李振剛 主編, 『龍門石窟』(2006), p. 74, 동위 홍화4년석조삼존불입상-金申 編著,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珍品紀年圖鑑』(2007), p. 81 전재)

을 이용하여 천인상의 천의가 바람에 날려 마치 화염문인 것처럼 표현하였고, 여기에 음각 선을 넣어 장식을 가미했다. 이는 관북리광배 화염문과 같은 기법이다. 그리고 관북리광배도 결구공이 있어서 천인상을 연결했을 가능성이 높아 갑인년명광배 외연의 천인상 장엄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이 광배 제작국을 남조 영향으로 백제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견해의 핵심은 광배 상단의 보탑과 ‘羽葆’라는 지물을 들고 있는 천인상인데, 하지만 보탑의 경우 남아 있는 예로 보면, 중국 북조에서 제작한 불상광배에도 있다. 藤井有鄰館 소장 정광3년명(522) 금동삼존불입상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정광연간(520~524) 제작의 금동불입상에도 확인된다. 비록 남조 영향의 근거로 든 사천성 성도 중대통2년(530) 석가상에 보이는 평지붕의 三刹은 아니지만 찰의 표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羽葆⁵³를 지물로 둔 천인상의 경우, 원형결절모양이나 깃털형 지물 등에서 남조의 중대통2년(530) 석가상과 등현 화상전묘 출토 화상전의 羽葆 보다는 용문석굴 蓮花洞 南壁外側下層 第2龕楣와 연화동 北壁上層龕楣에 維摩經變圖에 조각된 羽葆 천인상⁵⁴과 취리히 리트버그박물관 소장 동위 홍화4년

⁵³ 천인상의 지물인 우보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 소현숙선생님의 교시가 있었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⁵⁴ 용문석굴 연화동 남벽외측하층 제2감미와 연화동 북벽상층감미 유마경변도 우보천인상은 李振剛 主編, 『龍門石窟』(河南人民出版社, 2006), p. 69 참조.



도 20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측면 천인상
(우측상단 요고, 좌측상단 배소)
黃壽永, 『韓國의 佛像』(1989), p. 245 전제

명(542) 석조삼존불입상의 것이 보다 더 유사하다(도 19).⁵⁵

또한 법륜사 몽전 구세관음의 보주형 광배 상단에도 3개의 찰로 구성된 방형기단의 보탑이 있는데, 갑인명광배 상단 보탑과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법륜사 몽전 구세관음은 백제 위덕왕이 對新羅戰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성왕을 追福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견해가 있는 등⁵⁶ 백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갑인년광배의 제작국이 백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구한말 권상로가 쓴 『朝鮮佛敎通

史』 『彌勒佛光寺事蹟』에 겸익의 증인도 구법행 일화를 소개하면서 백제 성왕이 귀국하는 겸익을 맞이하는 장면이 ‘羽葆’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⁵⁷ 물론 『미륵불광사사적』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없지않으나, 최근 위의 기록을 신빙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⁵⁸

⁵⁵ 소현숙은 우보를 지물로 하는 천인상의 경우 북조의 세 사례 가운데서 가장 큰 친연성을 보이는 것은 연화동 천인상이라고 하면서도, 6세기 북조에서 동일한 형식이 연화동 이외에 발견되지 않으나 남조의 경우 5건이나 이른다고 하였다. 蘇鉉淑, 앞의 논문, p. 529. 하지만 필자가 우보 지물과 가장 유사하다고 한 3건과 소현숙이 제시한 5건을 비교·고찰하기에 잔존 예가 적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소현숙도 지적했듯이 북조의 것이 보다 더 친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⁵⁶ 金相鉉, 『百濟 威德王의 父王을 위한 追福과 夢殿觀音』, 『韓國古代史研究』15(한국고대사학회, 1999), pp. 47-75.

⁵⁷ 李能和, 『朝鮮佛敎通史』下 謙益齋梵本之律文條. “彌勒佛光寺事蹟云 百濟聖王七年丙午 既是丙午 則非七年 乃四年也 今考正之 沙門謙益 矢心求律 航海以轉至中印度常伽那大律寺 (중략) 齋梵本阿曇藏五部律文歸國 濟王以羽葆鼓吹迎 安于輿輪寺 (이하 생략)” 혹은 겸익이 바다를 건너 구법을 갔다면 남조를 경유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겸익의 구법이 아니라 ‘우보’라는 지물이 백제 불교 관계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⁵⁸ 겸익의 구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小玉大圓의 논문이 있고(小玉大圓, 『求法僧謙益とその周邊(上)』, 『馬韓百濟文化』8(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5), 小玉大圓, 『百濟求法僧謙益とその周邊(下)』, 『馬韓百濟文化』10(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7), 겸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심경순, 『6세기 전반 謙益의 求法活動과 그 의의』, 『梨大史苑』33·34(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2001)이 있다. 이도학은 『미륵불광사사적』에 대해 당대의 기록은 아니지만 8세기 중엽경 목판 인쇄 개념에 따른 것으로, 사적기는 겸익의 활동시기에서 200년 뒤에 편찬된 것으로 보아, 자료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李道學, 『百濟와 東南아시아 諸國과의 交流』, 『大백제국의 국제교류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08), pp. 168-172. 반면 이주형은 후대에 편찬된 사적기 내용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종종 제기되는 만큼 이 기록에 무게를 두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주형, 『인도로 간 구법승』,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사회평론, 2009), pp. 38-39.

갑인년명광배 주악천인상 중에는 요고와 배소가 보이는데, 요고의 경우 백제시대 유물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674년 백제계 유이민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계유명전씨아미타 불비상 측면 주악천인상에서 확인되고 있다(도 20). 특히 요고는 백제인 미마지가 일본에 전해준 伎樂 반주에 쓰였던 악기에 포함되어, 요고가 백제에서 연주되었음을 방증할 수 있다.⁵⁹ 요고는 당시 서역음악을 대표하던 쿠차기에 애용된 악기로 쿠차 즉 龜茲國의 기악을 말한다. 요고는 이 곳에서 발생한 악기인데,⁶⁰ 북위의 승관제가 구자국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⁶¹ 점에서 요고의 전파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⁶² 배소는 백제금동대향로 오악사 중에서도 확인되어 백제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임을 알 수 있다. 배소 또한 북방민족의 고유 악기일 가능성이 높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쿠차의 석굴벽화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중국 남조 음악에서는 배소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⁶³ 한편 갑인년명광배 주악천인상의 악기 중 동발의 경우 인도에서 기원했다는 점과 고구려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악기이지만,⁶⁴ 백제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겸익의 인도 구법 이후 백제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갑인년명광배 발원자인 왕씨의 경우 『新撰姓氏錄』에 왕인의 후예가 기록되어 있고⁶⁵ 『日本書紀』에서도 위덕왕대 일본으로 보낸 여러 박사들 중 왕씨 성의 인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이 광배 발원자인 왕연손은 백제계 인물로 보인다.⁶⁶

따라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갑인년왕연손명광배는 남조보다는 북조의 영향을 받아서 백제에서 594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59 岸邊成雄 著, 宋芳松 譯, 『고대 실크로드의 음악』(삼호출판사, 1990), pp. 46-49.

60 서정록, 『백제금동대향로』(학고재, 2001), p. 112.

61 韓枝延, 「西域의 佛教發展과 交流에 관한 研究」(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pp. 62-80.

62 『三國史記』 卷32雜志 第一樂條 중 고구려악에는 요고가 확인되고 있으나 백제악에는 요고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요고의 기원이 구자국에 있는 만큼 고구려를 통해서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63 서정록, 앞의 책, pp. 80-96.

64 『隋書』 音樂志에는 중국에서 성행한 음악을 정리한 七部伎가 기록되어 있는데, 칠부기에는 고구려악이 포함된 7개국의 기악과 여기에 사용된 악기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고구려에서 사용된 악기에 동발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은 서정록, 앞의 책, p.110 표2에서 참조하였다.

65 洪思俊, 『新撰姓氏錄의 百濟人姓氏考』, 『馬韓百濟文化』2(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7), p. 202.

『新撰姓氏錄』 第三帙 左京諸蕃上 武生宿禰條, “文宿禰同祖 王仁孫 阿浪古首之後也”

66 『日本書紀』 欽明天皇 15年 2月條, “二月百濟遣下部杆率將軍三貴上部奈率物部烏等乞救兵 仍貢德率東城子莫古代前番奈率東城子言 五經博士王柳貴 代固德馬丁安 僧曇慧等九人代僧道深等七人 別奉勅貢易博士施德王道良 曆博士固德王保孫醫博士奈率王有悽陀採藥師施德潘量豐固德丁有陀樂人施德三斤季德己麻次季德進奴對德進陀 皆依請代之”

Ⅲ.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의 양식 특징과 중국 산동성 출토 금동불상광배와의 관계

앞 장에서 9점의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와 함께 중국 남북조시대 광배 양식 및 조상기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드러난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의 양식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세기는 삼국시대 불교 수용 이후 약 150~200여년이 지난 시기이지만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불상은 거의 모두 6세기대 일광삼존불상광배이다. 따라서 삼국의 불교 수용 시기에 따라 고구려의 예가 가장 많고, 백제도 몇 예가 남아 있다. 고신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이 있지만 광배까지 잔존한 예는 극히 드물다.⁶⁷

둘째, 광배에서 화염문의 양식 전개는 전체적으로 6세기 초반의 고사리형 건흥5년명광배, 영강7년명광배, 계미명광배, 금동보살삼존상광배를 시작으로 6세기 후반 'U'자형의 정지원명광배, 변형 'U'자형의 신묘명광배로 전개되고, 특히 고구려작으로 추정되는 광배에서만 수평선문이 확인되었다. 수평선문은 고구려 고분벽화 중 5세기 후반~6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쌍영총과 개마총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어, 6세기 금동불상과 광배가 거의 동일한 형식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제작국 추정에 좀 더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6세기 중·후반이 되면 두광에 덩굴문양과 신광에 줄기달린 꽃봉오리가 표현되고 보주문도 이즈음에 등장하여 7세기까지 유행하다 사라진다. 이는 북제시기까지 유행하다 점차 사라지는 중국의 유행시기와도 유사하다. 특히 6세기대 두광 구획선에 있던 보주문이 7세기가 되면 두광 바깥쪽으로 벗어나 시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6세기 후반~7세기 석조상 중 보주문이 두광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상은 예산사면석불 남면 여래좌상광배와 익산연동리석조광배,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등이 있다.

셋째, 고구려의 경우 그동안 가장 이른 시기의 불상으로 연가7년명불상이 언급되었는데, 광배 양식과 조상기 명문을 고찰한 결과 건흥5년명광배가 기존 596년 보다 536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건흥5년명광배에서 확인되는 수평선문과 조상기의 '釋迦文像', '淸信女'라는 명문은 중국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조상기에서 확인되고, 화염문 형태는 보태2년명광배 화염문과 유사성을 보이는 등 이른 시기 중국 광배 형식과

⁶⁷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금동삼존불입상이 있지만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아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거의 유사하면서도, 중국 광배 보다는 단순한 두·신광을 보이고 있어서, 그 제작시기를 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가7년명불상이 가장 이른 시기의 불상이라 여겼던 생각과 아울러 건흥5년명광배의 편년을 재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한편 계미명불상과 춘천출토 금동보살삼존상 그리고 신묘명불상은 산동성 출토 味妙造銘금동불상, 금동보살삼존상, 일불이보살입상 등의 諸像들과 광배의 형식 및 화염문의 형태 등에서 매우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계미명광배와 용화사지 출토 매묘조명광배는 화염문과 두·신광 내 여러 문양이, 춘천출토 금동보살삼존상과 제성현 임가촌 출토 금동보살삼존상은 보살삼존상과 화염문 형식에서, 그리고 신묘명광배와 용화사지 출토 일불이보살입상광배는 화염문과 본존불의 형식에서 많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산동성 지역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수 있고, 특히 계미명불상의 경우 수평선문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고구려작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6세기 전반 백제의 경우에는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된 금동광배를 들 수 있겠다. 이 광배는 천인상 등 장엄구를 위한 결구공이 남아 있는데, 이는 그 외형에서 北魏 普泰2년명(532) 금동광배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정광원년명(520) 관세음상광배와 정광3년명(522) 금동삼존불입상광배 화염문 표현방법이 관북리광배와 마찬가지로 화염문만 두드러지게 표현하면서 그 안쪽에 음각선으로 넣은 점이 비교된다. 백제의 경우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은 서산마애불 삼존불 중 본존불 광배가 보주형이지만 역시 광배 내 화염문이 ‘山’자의 삼지형으로 관북리광배와 백제작으로 추정되는 법륜사현납보물196호 갑인년명광배와 동일한 계통으로 모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관북리광배의 두광 내 연화문은 서산마애불 본존불광배 연화문과 익산연동리석조 광배 연화문 등이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고 오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통하는 형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비교적 화려한 문양의 중국 광배에 비해 단순한 두광과 신광만 표현된 관북리광배는 건흥5년명광배와 함께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광배 외형이나 화염문의 표현방법 등을 고려한다면, 북조의 영향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 동안 남조 일변도의 불교문화 영향관계 측면을 벗어나 어느 정도 북위의 영향도 간취할 수 있었다.

정지원명불상은 그 동안 백제작인지 의구심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중국 산동성 박흥현 용화사지 출토품 중 정지원명불상과 거의 유사한 형식의 금동불상이 확인되었다. 화불 1구, 선각의 화염문, 본존불의 형식, 조상기의 형식이 발원자, 발원대상, 발원내용 순으로 유사하고, 山東四姓 중에 정씨가 포함되는 점, 조상기의 ‘敬造’라는 명문이 용화사지 명문 조상 59점 중 14점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산동성에서 제작되어 백제로 傳世된 것

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았다.

6세기 후반 갑인년명광배는 천인상의 지물인 우보가 용문석굴 연화동 천인상 羽葆와 가장 유사하고, 주악천인상의 악기 중 각각 서역과 북방민족 기원의 요고와 배소가 백제금동향로와 백제계유인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에서 확인된다. 특히 갑인년명광배 상단의 보탑의 경우는 백제계로 추정되는 법륜사 몽전의 구세관음광배 보탑과 유사하여 주목되는데, 몽전 구세관음이 백제에서 제작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갑인년명광배 제작국 추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발원자인 왕연손도 백제계 인물로 추정되어 결국 갑인년명광배는 북조의 영향으로 백제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섯째, 최근 중국 산둥성에서 많은 양의 금동과 석조불상이 출토되어 주목되었다.⁶⁸ 산둥성은 예로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왔던 곳으로 이는 선학들에 의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박흥현과 청주시에서 출토된 금동과 석조상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삼국시대 6세기 중·후반 금동상 및 광배와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미명불상은 박흥현 용화사지 출토 昧妙造銘금동불상과, 리움 소장 금동보살삼존상은 諸城縣 林家村 발견 금동보살삼존상과, 경4년신묘명불상과 정지원명불상 역시 박흥현 용화사지에서 출토된 2개의 일불이보살입상 등의 광배에 표현된 화염문과 조상기의 명문 형식 등에서 각각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고구려의 경우 『續高僧傳』卷25 魏太山朗公谷山寺釋僧意傳에 기록된 낭공곡사 즉 신통사에 전해졌다는 高麗像은 산둥성과 고구려의 교류를,⁶⁹ 백제의 경우에는 『三國史記』백제본기 위덕왕 18년조와 『北齊書』 권8 後主紀에 보이는 백제 위덕왕의 ‘使持節都督東靑州諸軍事東靑州刺史’ 작호 명칭 중 ‘東靑州’라는 지명에서 산둥성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듯 하다.⁷⁰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금동불상 뿐 아니라 석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불상이 확인되고 있다. 예산사면석불 동면 불입상과 제작기법과 형식에 있어서 유사한 석조상이 산둥성 용흥사지에서 최근 출토되었다(도 21). 제작시기가 동위(534~550)와 천평 3년(536)년인 이 두 불상은 예산사면석불 동쪽 여래입상의 제작기법처럼 손목을 별도 제작하여 끼워넣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의 착의에 있어서도 대칭이 아니

⁶⁸ 산둥성에서 출토된 북조대 소금동불상은 전체적으로 고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은경, 앞의 책, p. 316.

⁶⁹ 문명대, 「고구려 금동불상과 중국 산둥 금동불상 교류」, pp. 17-18; 양은경, 「고구려 금동불 광배와 중국 산둥지역 불상 광배」, pp. 148-149.

⁷⁰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 威德王 18年條, “高齊後主又以王 爲使持節都督東靑州諸軍事東靑州刺史” 『北齊書』卷8 後主紀, “武平二年 春正月(중략) 戊寅以百濟王餘昌爲使持節都督東靑州刺史”



도 21 예산사면석불 동면 불입상, 6세기 후반, 상
높이 122cm, 산동성 용화사지 출토 천평3
년尼智明明 삼존불입상, 잔존높이 83cm,
청주시박물관 소장(좌: 필자 촬영, 우: 中华
世纪坛艺术馆·青州市博物馆编, 『青州北朝
佛教造像』(2002), p. 165 수정 후 전제)

라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표현되어 역시 동일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양쪽 손목에서 흘러내린 대의자락도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역시 예산사면석불 동쪽 아래입상과 유사하다. 비록 삼존상과 사면석불이라는 차이점을 있지만 아래의 착의형식이나 제작기법 상에서 보여주는 유사성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⁷¹

우견편단의 착의법을 보이면서 보주를 지물로 삼고 있는 금동불입상 또한 신라에서 비교적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남인도에서 중국을 거치는 남방해로의 영향 관계 못지않게 산동성 청주 용흥사에서 확인된 많은 우견편단 아래입상을 통해

⁷¹ 中华世纪坛艺术馆·青州市博物馆编, 『青州北朝佛教造像』(北京出版社, 2002), pp. 77-79. 김춘실은 예산사면석불 남면 아래좌상을 길쭉한 체구, 편삼을 걸친 대의형식, 대좌 위로 늘어진 상현좌 등의 형식으로 보아 성도 만불사지 출토 梁代 석조여래좌상과 양식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 북조 보다는 남조와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하였다. 金春實, 「百濟 彫刻의 對中關係」, 『百濟 美術의 對外交渉』(第5回 全國美術史學大會, 藝耕, 1998), pp. 105-110. 하지만 예산사면석불 남면 아래좌상의 경우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북위 永興2년(533)銘 解保明造비상의 본존상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金申 編著,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珍品紀年圖鑑-』, p. 63 참조. 다리 표현이 치졸하고, 대의 착의 형태가 예산사면석불 남면 아래좌상에 비해 반대로 표현되었지만 전체적인 대의처리 방식이 비교되는 상인데, 소발에 육계가 높고, 북위 말~동위대의 다른 불상 처럼 소위 秀骨清像형이 아니라 상호는 길지만 약간 방형에 둥근 턱선을 보이고 있고, 어깨도 견장하게 매우 넓은 편이어서 좌상이라는 점과 대의착의면에서는 예산사면석불과 비교되지만, 아래상의 넓은 어깨선과 길지만 방형의 상호를 보면 태안마애불상 중 좌·우여래상과도 비교된다. 따라서 예산사면석불 중 남면 아래좌상과 비교할 수 있는 상이 남조 뿐 아니라 북조 특히 북위상에서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예산사면석불 동면 불입상과 유사하게 별도 제작된 손부분,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옷주름 표현 등의 형식을 보이는 불상이 산동성 용흥사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가까운 지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불교조각의 영향관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산동성과의 관련성을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 산동성에서 출토된 금동불상과 석조불상을 살펴본다면 남·북조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산동성 지역은 남조인 송이 북진정책을 실시하여 남조의 영역이 된 적이 있었고, 남제시기에는 다시 북위의 영역이 되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漢城都邑期の 百濟』(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3, 2007), p. 232. 따라서 혼합된 양식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동성 출토 조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동지역 금동불상이 전체적으로 고식을 많이 유지하고 있거나(양은경, 앞의 책, p. 316), 석조불상은 보수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최성은, 앞의 논문, pp. 58-59) 우리나라 삼국시대 금동불상이나 석조불상에 대해서는 남조 혹은 북조의 영향관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수성과 고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산동성 불교조각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리나 선생 또한 남북조의 요소가 같이 혼합된 산동지역 불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리나, 앞의 논문, p. 118.

서, 산동성과의 관계도 다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⁷²

이와 같이 고구려·백제·신라 삼국 모두 산동성과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동성과 우리나라 고대 삼국의 불교조각과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주목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동성에서 출토된 불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삼국시대 금동광배는 조상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작국 등에서 이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존 작품이 많은 중국 북조의 금동광배와의 양식 비교를 함으로써 어느정도 편년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였다. 삼국시대 불교문화는 중국의 영향이 지대하였고, 불교조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남조 조상이 지극히 적은 상황에 비해 북조의 경우는 매우 많은 수의 조상이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6세기 금동광배만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7세기에 해당되는 광배나 석조광배가 제외되었고, 광배의 주문양인 화염문만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매우 한정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연화문, 보주문 등 광배 외연을 장엄하는 각종의 문양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자 한다. 또한 불상 제작의 배경이 되는 조상기 명문과 광배를 장엄하는 각종의 문양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보다 종합적인 광배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상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삼국시대 광배의 전반적인 내용과 변화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동광배의 양식 고찰은 화염문과 일부 조상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사리형은 6세기 전·중반에, 'U'자형과 변형 'U'자형은 6세기 후반에 유행하였고, 화염문과 본존상의 형식면에서 특히 산동성 출토 제상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건흥5년명광배의 경우 기존의 596년 보다는 53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고구려 제작 광배에서만 수평선문이 확인되어 제작국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경우 관북리 출토 광배와 갑인년왕연손명광배는 북조의 영향으로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남조 일변도의 불교문화 영향관계 측면을 벗어나 어느 정도 북위의 영향도 간취할 수

⁷² 최성은, 「新羅 佛教彫刻의 對中關係」, 『新羅 美術의 對外交渉』(第6回 全國美術史學大會, 예경, 2000), pp. 41-45.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산둥성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6세기대 불교조각과 유사한 형식을 가진 금동과 석조불상이 출토되었는데, 고구려·백제·신라 삼국 모두 밀접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조상과 문헌기록을 살펴보았다. 선학들에 의해서 이미 제기되었지만, 금동불상과 광배에 표현된 화염문 그리고 명문에 있어서도 주목되는 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산둥성에서 출토된 제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Key Words)**_금동광배(gilt-bronze halo), 화염문(flame design), 수평선문(design with horizontal lines), 산둥성(Shandong Province), 금동건흥5년명광배(Gilt-bronze Halo Inscribed with the 5th Geonheung Year), 관북리 출토 금동광배(Gilt-bronze Halo of the Gwanbungni Site), 금동갑인년왕연손명광배(Gilt-bronze Halo Inscribed with the Gabin Year and Wang Son Myeong)

■ 투고일 2012년 5월 21일 | 심사개시일 2012년 9월 4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29일 ■

참고문헌

1. 경전류

- 『光讚經』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불전간행회 편, 민족사, 1996)
『洛陽伽藍記』(양현지, 서윤희 역, 놀와, 2001)
『大唐西域記』
『大智度論』
『方廣大莊嚴經』
『放光般若經』
『佛本行集經』
『雜阿含經』
『長阿含經』
『中阿含經』
『增一阿含經』

2. 도록 및 보고서

-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993.
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陵寺』, 2000.
국립부여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백제가람에 담긴 불교문화』, 2009.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2007.
서울대학교박물관, 『불상, 지혜와 자비의 몸』, 서울대학교박물관 제44회 기획특별전, 2007.
黃壽永·秦弘燮·鄭永鎬, 『韓國佛像三百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金申, 『中国历代纪年佛像图典』, 文物出版社, 1994.
金申 編著,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珍品纪年图鉴—』, 山西人民出版社, 2007.
鄭汝中·台建群, 『中國飛天藝術』, 安徽美術出版社, 2000.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灣商務印書館, 1993.
奈良國立博物館, 『特別展 東アジアの佛たち』, 1996.
東京國立博物館, 『特別展 日本の金工』, 1983.
東京國立博物館, 『特別展 法隆寺獻納宝物』, 1996.
松原三郎, 『增訂中國佛教彫刻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3. 단행본

- 강우방·곽동석·민병찬, 『불교조각 I』, 솔, 2003.
- 길기태, 『백제 사비시대의 불교신앙 연구』, 서경, 2006.
- 문명대·최성은·양은경·류평권, 『고구려불상과 중국 산둥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 배진달,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 서정록, 『백제금동대향로』, 학교재, 2001.
- 俞元載, 『中國正史 百濟傳 研究』, 學研文化社, 1993.
- 이공범, 『위진남북조사』, 지식산업사, 2003.
- 이주형, 『간다라미술』, 사계절, 2003.
- 이주형,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문명』, 사회평론, 2004.
- 임영애, 『서역불교조각사』, 일지사, 1996.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 최완수, 『佛像研究』, 지식산업사, 1984.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漢城都邑期の 百濟-백제의 중국 대륙진출』, 2007.
- 황수영,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89.
- 구노 미키·최성은 역, 『중국의 불교미술』, 시공사, 2001.
- 벤자민 로울랜드, 이주영 역, 『인도미술사』, 예경, 1996.
- 최봉수 역, 『마하박가』, 시공사, 1998.
- 마쓰창 외·양은경 역, 『중국 불교석굴』, 다홍미디어, 2006.
- 馮賀軍 著, 『曲陽白石造像研究』, 紫禁城出版社, 2005.
- 張淑敏等 著, 『山東博興銅佛像藝術』, 藝術家, 2005.
- 吉村 怜, 『天人誕生圖の研究』, 東方書店, 1999.
- 吉村 怜, 『中國佛教圖像研究』, 東方書店, 1983.
- 宮治 昭, 『インド美術史』, 吉川弘文館, 1991.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飛鳥資料館, 『飛天』, 1989.
- 長澤和俊, 민병훈 역, 『돈황의 역사와 문화』, 사계절, 2010.
- 長澤和俊, 이재성 역,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民族社, 2005.
- 大西修也, 『日韓古代彫刻史論』, 中國書店, 2002.
- 石松日奈子, 『北魏佛教造像史の研究』, Brücke, 2005.
- 小杉一雄, 『中國文様史の研究-殷周時代爬虫文様展開の系譜-』, 新樹社, 1959.
- 小杉一雄, 『中國美術史-日本美術の原流-』, 南雲堂, 1986.
- 安藤佳香, 『佛教莊嚴の研究-グプタ式唐草の東伝-』, 中央公論美術出版, 2003.
- 林温, 『日本の美術 第330號-飛天と神仙-』, 至文堂, 1993.

『日本の美術』359, 至文堂, 1996.

村田靖子, 『佛像の系譜』, 大日本繪畫, 1995.

The Government Museum Mathurā, 『KUṢĀṆA COINS AND SCULPTURES』, 1986.

4. 논문

강희정, 「중국 남북조시대 ‘생천(生天)’ 원망(願望) 금동불에 보이는 ‘천(天)’의 개념」, 『미술사와 시각 문화』2,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3.

郭東錫, 「製作技法을 통해 본 三國時代 小金銅佛의 類型과 系譜」, 『佛敎美術』11,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2.

郭東錫, 「百濟 佛像의 龍文系 火焰光背」, 『신라문화』17·18합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0.

郭東錫, 「金銅製一光三尊佛의 系譜 - 韓國과 中國 山東地方을 中心으로-」, 『美術資料』51, 국립중앙박물관, 1993.

金理那, 「高句麗 佛敎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敎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도서출판예경, 1996.

金明淑, 「韓國佛像光背의 樣式研究」, 『梨大史苑』16,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1979.

金容民, 「扶蘇山城 東門址 出土 金銅光背」, 『美術資料』57, 국립중앙박물관, 1996.

김용민, 「益山 王宮城의 造營과 空間區劃에 對한 考察」, 『고대 도시와 왕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김주미, 「一象文의 도상학적 고찰과 문화권에 따른 특징」, 『단군학연구』18, 고조선단국학회, 2008.

金春實, 「百濟 彫刻의 對中交涉」, 『百濟 美術의 對外交渉』, 藝耕, 1998.

金春實, 「三國時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6세기 말~7세기 초를 中心으로-」, 『美術資料』55, 국립중앙박물관, 1995.

金春實, 「中國 山東省 佛像과 三國時代 佛像」, 『미술사논단』19, 한국미술연구소, 2004.

金惠媛, 「중국 초기 淨土 표현에 對한 高찰-四川省 成都 발견 造像을 中心으로-」, 『미술사연구』17, 미술사연구회, 2003.

도학회, 「비천(飛天)의 도상적(圖像的) 고찰」, 『미술교육논총』15,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2002.

閔丙勳, 「中央아시아-宗教傳播의 諸樣相-」, 『韓國服飾』12(1994), 『초원과 오아시스 문화 중앙아시아』, 국립중앙박물관, 2005.

裴珍達, 「敦煌 莫高窟 編年 試論-佛光 形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65, 국립중앙박물관, 2000.

성윤길, 「扶餘 官北里出土 金銅光背」, 『美術資料』74, 국립중앙박물관, 2006.

심경순, 「6세기 전반 謙益의 求法活動과 그 의의」, 『梨大史苑』33·34,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2001.

蘇鉉淑, 「法隆寺 獻納寶物 甲寅銘王延孫光背 研究-장엄의장을 통한 연원과 제작국 고증-」, 『韓國古代史研究』54, 한국고대사학회, 2009.

송방송, 「金銅龍鳳蓬萊山香爐의 百濟樂器攷」, 『韓國學報』79, 일지사, 1995.

- 宋眞, 「北齊 ‘西胡化’의 背景과 그 性格」, 『魏晉隋唐史研究』15, 중국고중세사학회, 2006.
- 梁銀景, 「景四年辛卯銘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先史와 古代』26, 한국고대학회, 2005.
- 양은경, 「중국 山東지역 불상과 한국 삼국시대 불상의 교류 관계」, 『강좌미술사』26,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 梁銀景, 「고구려 금동불 광배와 중국 산둥지역 불상 광배」,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둥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 俞元載, 「百濟略有遼西’記事의 分析」, 『百濟研究』2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9.
- 이송란,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上表現에 나타난 火焰文의 意味와 展開」, 『美術史學研究』220, 한국미술사학회, 1998.
- 李柱亨, 「佛傳의 ‘舍衛城神變’ 說話」, 『震檀學報』76, 진단학회, 1993.
- 임영애, 「서역불교미술에서의 鳥翼冠과 冠帶」, 『中央아시아研究』11, 중앙아시아학회, 2006.
- 趙容重, 「益山 蓮洞里 石造如來坐像 光背의 圖像研究」, 『美術資料』49, 국립중앙박물관, 1992.
- 趙源昌, 「熊津遷都後 百濟瓦當의 中國 南北朝要素 檢討-北朝系 瓦當을 中心으로-」, 『百濟文化』3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1.
- 최미순, 「寶珠와 觀音菩薩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執寶珠菩薩像을 中心으로-」, 『美術史學研究』256, 한국미술사학회, 2007.
- 최경원, 「북위 불상복제의 중국화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미술사연구』8, 미술사연구회, 1994.
- 洪思俊, 「百濟砂宅智積碑에 對하여」, 『歷史學報』6, 역사학회, 1954.
- 輕部慈恩, 「百濟의 舊都, 熊津發見의 百濟式石造光背について」, 『考古學雜誌』第20卷3號, 日本考古學會, 1930.
- 高田 修, 「焰肩佛と雙神變像」, 『佛教藝術』, 毎日新聞社, 1984.
- 吉村 恰, 1960, 「雲崗石窟における蓮華化生の表現」, 『美術史』37, 美術史學會, 1960.
- 吉村 恰, 「法隆寺獻納御物王延孫造光背考」, 『佛教藝術』184號, 毎日新聞社, 1990.
- 大西修也, 「百濟佛の立像と一光三尊樣式」, 『MUSEUM』315號, 東京国立博物館, 1977.
- 森安孝夫, 「佛教と異宗教と出遣い」, 『佛教東漸』, 1991.
- 石田茂作, 「佛像光背の種類と變遷」, 『考古學雜誌』, 第30卷2號, 日本考古學會, 1940.
- 小玉大圓, 「求法僧謙益とその周邊(上)」, 『馬韓百濟文化』8,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5.
- 小玉大圓, 「百濟求法僧謙益とその周邊(下)」, 『馬韓百濟文化』10,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7.
- 熊谷宣夫, 「甲寅年王延孫造光背考」, 『美術研究』209號, 東京文化財研究所, 1960.
- 八木春生,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摩尼(宝珠)の表現の諸相」, 『佛教藝術』189, 毎日新聞社, 1990.

5. 학위논문

- 金恩英, 「寶珠의 圖像과 特徵」,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梁秀美, 「中國 山東 淸州지역 一光三尊佛 研究-北魏後期~北齊時期 石造像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李瑞勳, 「中國 北朝 西方往生 祈願銘 佛像 研究」,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 인선영, 「高句麗 古墳壁畫에 표현된 天上世界」,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제송희, 「중국 南北朝時代 팔메트(palmette)문양의 발달과 전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趙容重, 「百濟 佛像光背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崔宣一, 「統一新羅時代 天人像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許冰彬, 「山東博興龍華寺遺址出土佛教遺物分期研究-以鎏金銅造像爲中心」, 北京大學校 碩師研究生學位論文, 2005.
- 李姪恩, 「北朝裝飾紋樣研究-5,6世紀中原北方地區石窟裝飾紋樣的考古學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 2002.

국문초록

삼국시대 금동불상과 광배가 현존하고 있지만 몇몇 像에서 제작국과 제작연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동광배에 주목하였다.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는 9점 정도인데, 이들 광배의 양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광배의 주문양인 화염문의 양식 전개는 6세기 초반 고사리형에서 6세기 후반 'U'자형과 변형 'U'자형으로 전개되고, 특히 고구려 제작의 광배에서만 수평선문이 확인되어 제작국 추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구려의 경우 가장 이른 시기의 불상으로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이 언급되었지만 금동건흥5년명광배에서 비교적 초기에 해당되는 중국 광배의 형식과 조상기 명문 등이 확인되어, 596년 보다는 536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백제의 경우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광배 외연의 결구공과 화염문 형식에서 북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금동광배가 출토되어, 남조 일변도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북조의 영향도 간취할 수 있었다. 일본 법류사 헌납보물인 금동갑인년왕연손명광배의 경우 천인상의 지물인 우보가 용문석굴 연화동 천인상 우보와 외형상 가장 유사하고, 주악천인상의 요고와 배소 등이 백제금동향로와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에서 확인되며, 발원자인 왕연손도 백제계로 추정되어, 이 광배 또한 북조의 영향으로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중국 산둥성 박흥현이나 청주시 등에서 출토된 조상들이 삼국시대 6세기 중·후반 금동불상 및 광배 형식면에서 비교 고찰의 대상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금동보살삼존입상,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금동정지원명석가여래삼존입상 등은 본존불과 광배 화염문 그리고 조상기의 명문 내용과 그 형식 등에서 각각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Abstract

A Study of Gilt-bronze Halo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6th Century

Sung, Yun Gil *

This study is focused on some halos of gilt-bronze Buddha statues mad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57 B.C. - 668) which have been subjects of controversy regarding their origin and production years. There are currently nine gilt-bronze halos of the 6th century remaining today, each exhibiting a characteristic element in style.

The principle motif, flame, of these halos was marked by the shape of fern in the early 6th century which gradually changed to U shapes. As for those made in Goguryeo, a design of horizontal lines provides a distinctive feature, helping find their origin.

One remaining Goguryeo relic, the Gilt-bronze Halo Inscribed with the 5th Geonheung Year, for instance, displays a form reflecting an influence from China in an earlier period with an inscription suggesting that it was made in 536 rather than 596. As for Baekje relics, holes made along the edges as well as the flame design of a recently discovered gilt-bronze halo in Gwanbuk-ri of Buyeo lead scholars believe that it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from the Northern Dynasties to have been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As for the Gilt-bronze Halo Inscribed with the Gabin Year and Wang Son Myeong, the symbolic objects held by apsaras reflect an influence from the Northern Dynasties while the hourglass drum and pan flute are comparable with the instruments carved in the Baekje Gilt-bronze Incense

*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urner and the Amitabha Monument Inscribed with the Gyeyu Year and Jeon. Even the name Wang Yeon Son who funded the monument is believed to have been that of a Baekje person.

Some statues excavated recently in the Shandong area in China attract the attention of art historians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ilt-bronze Buddha statues with halos made during the mid and late 6th century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Discoveries in both regions expect further studies with regard not only to the Principle Buddha Images and the halo with flame design but to the form and content in the commemorative inscriptions.